

정현종의 「화음-발레리나에게」에 대한 인지시학적 연구

— 시간은유의 공간화 양상을 중심으로

소필균(전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4. 공간화된 초월적 인지지향 |
| 2. 이원화된 언어적 인지기호 | 5. 결론 |
| 3. 단면화된 시간의 인지구조 | |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정현종의 「화음-발레리나에게」를 인지시학적인 관점에서 시간은유의 공간화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 시는 등단작¹⁾으로서 그의 초기시의 특성인 실존적 한계와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존재론적 모색을 드러낸다. 이러한 실천은 형이상학적 정신세계의 탐구와 언어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진다.

정현종은 한국현대시사의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기대되는 시인이다.²⁾ 이

1) 정현종은 1964년 『현대문학』에 「화음」, 「주검에게」가 추천되고 1965년 「독무」, 「여름과 겨울의 노래」가 추천 완료되어 등단한다.

2) 정현종은 김춘수류의 내면 탐구가 외부 정경화보다 값있다는 것과 김수영류의 현실 비판적

러한 그의 시세계를 대표하는 특성은 형이상학의 철학적 세계관으로, 기존의 재래적인 관습에서 나아가 사물³⁾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언어적인 실험정신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현종의 특성에 대해서 이경수⁴⁾는 재래의 한국시 전통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새로운 요소는 무엇보다도 시적 이미지의 새로움이라고 보았다. 한편 언어적 특성에 대해 홍정선⁵⁾은 정현종이 독자적인 시 언어를 생성하는 작업에 몰두했기 때문에 한국 현대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면서 ‘탄성(彈性)의 언어’라고 표현했다. 이렇듯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연관되는 언어에 대한 탐구는 그의 시세계의 핵심적인 특성이다.

정현종은 『화음』⁶⁾에서 인간의 상승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용’을 형상화한다. 그는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를 무용을 통한 상승적 몸짓으로 표현한다. 예술은 인간의 미적 인식의 폭을 넓혀준다는 면에서 보면 시인의 감수성은 철학적 고민을 예술적으로 끌어내어 미적인 인식의 성취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정현종의 『화음』의 소재나 발상은 철학적 사유의 한 면을 미학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또한 텍스트의 미학적 특성이 시간은유의 공간화 양상으로 나타난다. 정현종은 인간의 근원적 존재에 대한 탐구를 시간과 공간의식의 양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화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 한계 극복의 과정을 무용으로 형상화해내는 인지의미 생성에 관여하는 상상력의 구조를 밝혀보고자 한다.

인간의 몸은 가장 다층적인 소통과 표현을 위한 기호이며, 몸짓은 인간의 다면적인 의식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기호의 기본적인 양태이다. 『화음』은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몸짓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 글은 몸짓으로 이루어지는 신체화된 상상이 인식의 세계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형상화

시의 장점을 배우며 60년대 시인 중에서 가장 독특한 시세계를 이룩한다(김병의·김 현 편, 『우리 시대의 작가연구총서 정현종』, 은애, 1979, 4면).

3) 정현종이 의미하는 ‘사물’은 넓은 범주로 물건에서부터 정서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말한다(정현종, 이광호 대담, 『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광호 엮음, 『정현종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31면~32면).

4) 이경수, 『바람의 현상학』, 『작가세계』, 1990, 가을, 71면.

5) 홍정선, 『시인의 탄성(歎聲)과 탄성(彈性)의 시』, 『문학과 사회』 21, 문학과지성사, 2008, 11, 440면.

6) 이 글에서는 이하 텍스트의 표기를 부제목을 생략해서 『화음』이라고 한다.

하는지 인지시학적인 관점으로 정치하게 분석해보려는 것이다.⁷⁾

이제까지 『화음』 한 작품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김주연⁸⁾은 별빛이 시인이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위무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으며, 시인은 발레리나의 울동을 바람이 불고 있는 지상과는 무관한 곳에서 창조의 꿈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부러워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김현⁹⁾은 정현종이 발레에 심취하게 된 전기적 사실을 피력하면서 천주교에서 의식의 아름다움을 배웠다면, 발레의 아름다움에서 초월의 힘을 배웠다고 본다. 그는 시인의 날렵함과 가벼움에 대한 집착에 대해 지적하기도 한다. 이렇듯이 시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인지시학적인 관점에서의 분석 시도는 내면의 의미화 과정 탐구를 통해 의미구조의 형태와 내용을 다층적으로 확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인지시학(cognitive poetics)¹⁰⁾은 인지의미론(cognitive semantics)의 주요 개념과 방법을 적용해서 작품의 의미 형성과정을 연구하는 방법론이다. 인지의미론은 작품이 어떻게 기호화되는지 독자가 어떤 과정으로 텍스트의 기호를 인지하는가에 주목한다. 따라서 인지의미론은 기호학(semiotics)의 한 하위 부류에 속한다. 인지시학은 인지언어학(linguistique cognitive)과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을 토대로 하며 나아가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을 형성한다. 이렇듯 인지시학은 관련 학문과의 융합적 방법으로 이루어나가는 창의적인 방법론이다.

이 글에서 적용하는 인지시학의 이론적 주요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
- 7) 인지시학적 방법으로 정현종의 시를 분석한 필자의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현종의 <무지개나라의 물방울>에 대한 인지시학적 분석-공간은유의 의미확장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52집, 2012, 2. 『정현종의 <독무>에 대한 인지시학적 분석-은유와 환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2집, 2012, 12.
- 8) 김주연, 『정현종의 진화론』, 이광호 엮음, 앞의 책, 103면.
- 9) 김 현, 『정현종을 찾아서』, 이광호 엮음, 앞의 책, 336~337면.
- 10) 인지시학(cognitive poetics)은 아직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론이 아니므로 필자는 해당 논문마다 적용되는 주요 이론의 개요를 설명한다. 인지시학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다음의 이론서를 바탕으로 한다. 양병호, 『한국 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 태학사, 2005.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8. G·레이코프, M·존슨, 노양진·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2009. G·레이코프, M·존슨, 임지룡·윤희수·노양진·나익주, 『몸의 철학』, 박이정, 2011. G·레이코프, M·터너, 이기우, 양병호 역, 『시와 인지』, 한국문화사, 1996. M·존슨, 이기우 역, 『마음 속의 몸』, 한국문화사, 1992.

다. 인지의미론에서 중요한 개념인 카테고리(category)는 경험에 근간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카테고리화(categorization)는 질서를 부여하는 인지 방식이다. 카테고리화의 중요한 개념은 가족적 유사성(family resemblances)으로 동일화(identification)의 관점에서 의미론적 계열체 형성을 인지하고 설명한다. 카테고리의 형성은 인지상의 유형화인 인지 모델(cognitive model)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인지 모델은 사고를 조직화하거나 카테고리 형성에 대해 추론할 때 이루어지며, 시인들의 상상력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하고 시를 정치하고 미시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러한 인지언어학의 중심 철학은 체험주의(experientialism)에 있다. 체험주의 철학은 인간의 몸(body)을 중심으로 한다. 체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인지시학에서의 은유는 언어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념적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의 작용 원리는 근원 영역(source domain)과 목표 영역(target domain)의 개념적 사상(mapping) 관계로 설명되는데, 이 사상의 인지능력에 의해 추상적이고 새로운 목표영역을 구조화하고 활성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인지시학적 요소가 중층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되는 이미지 도식(image schema)은 지각과 개념화 작용에 질서를 부여하는 수단이며, 세계에 대한 이해나 경험을 구조화한다. 이미지 도식은 경험의 구조화 양상에 따라 그릇(container) 도식, 경로(paths) 도식, 안-밖(in-out) 도식 등으로 유형화된다. 이러한 이미지 도식은 작품에 기저해 있는 상상력의 구조를 이미지들의 다양한 도식으로 도출함으로써 의미 구조를 선명하게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인지시학은 언어의 의미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방법론으로서 언어로 제시된 의미가 어떠한 인지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가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¹¹⁾ 이러한 인지시학은 텍스트의 인지체계와 상상력의 구조를 밝히는 데에 유용한 방법론이다. 인지시학적 분석을 위해 일차적으로 살펴보는 언어적 인지기호는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요소이며 의미구조를 형성하는 자질이다. 언어기호의 특성 분석은 텍스트의 의미화 과정을 드러내는 데 가장 기초 작업이다. 인지구조는 의미구조의 특성을 찾아내는 데에 빠대가 된다. 그러한 과정은 텍스트에서 구축되는 인지의 지향을 발견하게 한다.

11) 양병호, 앞의 책, 21면.

2. 이원화된 언어적 인지기호

기호학의 한 갈래인 인지시학에서 언어적 인지기호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텍스트 분석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기호론은 문학 텍스트의 언어를 포함해서 이미 존재하는 기호들을 밝혀낸다. 나아가 기호론은 텍스트 내에도 고유한 스스로의 기호를 생성해내는 문학 텍스트의 의미 생성체계를 관찰한다.¹²⁾

춤(무용, dance)이 보여주는 등근 모습과 리듬은 우주 창조, 시간의 공간화, 우주의 리듬 등을 상징한다. 춤이 보여주는 상승 이미지는 세계를 창조하고 ‘나’와 ‘너’의 결합을 상징한다.¹³⁾ 시인은 텍스트의 공간 안에 인지대상 ‘발레리나’를 설정해서 시간과 공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무용 예술을 형상화한다. 시간을 공간화하는 무용을 통해서 인간의 ‘시간’에 대한 한계의 극복을 표현하고자 한 의도가 의미심장하다. 정현종은 예술가로서의 인간이란 상투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사물의 핵심을 투철히 바라다보는 자이고 불가능을 꿈꾸는 자라고 본다.¹⁴⁾ 따라서 시인의 예술적 상상력은 그러한 시간의 한계성을 공간의 영원성으로 의미를 확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정현종 「화음」은 언어적 특성이 이원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 이원화는 기호적으로 수직과 수평을 이루는 상하의 공간화 양상을 보인다. 시간적인 면에서는 순간과 영원의 의미영역으로 나누어진다. 텍스트의 언어 기호는 수직과 수평, 상하의 방향성과 함께 순간과 영원의 의미적 층위로 대립되어 있다. 대립 구도는 울동감으로 바뀌어서 상황을 생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렇듯 정현종은 대립적인 것을 비대립적인 것으로, 상이한 것들 사이의 갈등과 불화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화해로 전화시키려 한다.¹⁵⁾

12) 최현무, 『한국문학과 기호학』, 문학과비평사, 1992, 16~17면.

13) 춤(무용, Dance)은 신의 창조 행위를 암시한다. 圓舞는 태양의 운동을 상징하며 가운데 성스러운 공간이 존재한다. 춤이 보여주는 상승 이미지는 신과의 동일성을 추구하고 마침내 춤을 통해 하늘과 땅의 결합을 상징한다(이승훈, 『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진』, 푸른사상, 2009, 509면).

14) 김 현, 앞의 글, 334~335면.

15) 남진우, 「정현종, 풀잎/보석의 상상 구조」, 이광호, 앞의 책, 190면.

- (1) ① 그대 불붙는 눈썹 속에서 일광
 ② 은 저의 머나먼 항해를 잡고
 ③ 화염은 타올라 踴躍의 발끝은 당당히
 ④ 내려오는 별빛의 서늘한 勝戰 속으로 달려간다.
 ⑤ 그대 발바닥의 火鳥들은 깎깎거리며
 ⑥ 수풀의 침상에 상심하는 제,

- (2) ① 나는 그 동안 뜨락에 家雁을 키웠느니
 ② 그 울음이 내 아침의 꿈을 적시고
 ③ 뒤뚱거리며 가브리엘에게 갈 적에
 ④ 시간은 문득 곤두서 단면을 보이며
 ⑤ 물소리처럼 시원한 내 뼈들의 風散을 보았다.

- (3) ① 그뒤에 땀기는 음식과 어둠은
 ② 원 바다의 고기떼처럼 살 속에서 놀아
 ③ 아픔으로 환히 밝기도 하며
 ④ 오감의 絃琴들은 타오르고 떨리어
 ⑤ 아픈 혼만큼이나 싸움을 익혀가느니.

- (4) ① 그대의 숨긴 극치의 웃음 속에
 ② 지금 다시 좋은 일이 더 있을리야
 ③ 그대의 질주에 대해 궁금하고 궁금한 그 외에는
 ④ 그대가 끊임없이 마룻장에서 새들을 꺼내듯이
 ⑤ 살이 뻗고 있는 빛의 갑옷의
 ⑥ 그대의 서늘한 승전 속으로
 ⑦ 망명하고 싶은 그외에는.

「화음-발레리나에게」¹⁶⁾

모든 대립 구조는 형이상학적 시각에서 상이한 구성항들을 융해시키는 구성적 차이에 기초한다. 무엇인가가 부재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대립적 시스템

16) 정현중, 『정현중 시 전집 1』, 문학과지성사, 1999, 20~21면.
 필자는 작품의 연과 행을 인용하기 위해 괄호와 원문자를 임의로 표기한다.

을 개념화하는 것은 최소한 그 무엇인가가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상정되어야 한다.¹⁷⁾ 달리 말해 한 요소가 있다는 것은 다른 요소가 없다는 것을 위해서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정현종의 「화음」은 4연 23행으로 구성되고 전체적으로 서술어미가 (1)연의 ④행과 (2)연의 ⑤행에 표현된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두 서술어미가 있는 문장의 의미를 강조해서 의미형성을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인지주체는 인지 대상 발레리나의 “별빛의 서늘한 승전 속”으로 상승을 인지하고, 인지주체의 “땀들이 風散”되는 자아의 해체를 인지한다는 중심 의미구조를 이룬다.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시어의 의미 영역은 다음 그림과 같이 이원화된 언어적 인지기로 나타난다.

<표 1> 이원화된 언어적 인지기호

구분	(1)연	(2)연	(3)연	(4)연
수직 수평	화염 타올라 火鳥 달려간다 침상 향해 발바닥	울음 꿈 가브리엘 단면 키웠느니	살 혼 타오르고 떨리어 바다	극치 웃음 빛 질주 새 마룻장
상승 하강	일광 불붙는 눈썹 勝戰 화염 타올라 달려간다 火鳥 깎깎거리며 내려오는 발바닥	家鴈 가브리엘 뜨락 물소리 적시고	음식 어둠	극치 웃음 새 빛
초월 갈등	화염 踊躍 별빛 수풀 침상 상심	風散 뜨락	살 絃琴 바다 고기떼 싸움	극치 승전 빛 웃음 살 망명

텍스트에 나타난 언어기호는 수직·수평, 상승·하강으로 분류되는 방향성을 기준으로 하는 양상을 보인다. 더 나아가서 그 심층적인 의미의 면에서는 초월·갈등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이다. <표 1>은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언어기호의 이원적 양상을 시각화한 분류이다. 이러한 이원화 양상은 의미구조의 역동성을 발현하게 한다.

무용가가 높이 뛰어올라 용약의 정점에 이를 때 중력으로부터 해방되듯이 시는 우리의 마음에 숨을 불어넣어 정신으로 하여금 용약하게 함으로써 우리

17) 움베르토 에코, 김성도 역, 『기호학과 언어철학』, 열린책들, 2009, 54면.

‘일광’은 ‘불붙’는 ‘눈썹’ 속에서 항해를 접는다. 수직적 상승을 향하는 ‘화염’은 ‘타올라’서 ‘별빛’의 ‘승전’ 속으로 달린다. ‘수평’과 ‘하강’의 인지 모델(cognitive model)²¹⁾을 나타내는 언어기호는 ‘내려오’는 발레리나의 ‘발바닥’과 ‘화조’가 ‘깍깍거리’며 ‘수풀’의 ‘침상’에 ‘상심’하는 양상으로 분포되어 카테고리화(categorization)된다.

(1)연을 구성하는 수직·상승의 활동적인 의미가 있는 언어기호는 수평으로 하강하는 언어기호보다 갯수가 많다. 수직·상승하는 언어기호는 수평·하강하는 언어기호보다 분포 밀도가 두 배가 높다. 그 이유는 (1)연에서 발레리나가 ‘蹣跚’하는 인지상황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기호는 ‘초월’과 ‘갈등’의 인지 모델로 수렴된다. 먼저 ‘초월’의 인지 모델을 나타내는 카테고리(category)의 언어기호는 ‘화염’, ‘蹣跚’, ‘별빛’ 등이다. 그러한 언어기호는 시각적으로 위로 향하는 수직과 상승의 양상을 보이며 세상의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나 공중으로 가볍게 상승하는 이미지를 드러낸다. 한편 ‘갈등’의 인지 모델을 나타내는 카테고리의 언어기호는 ‘수풀’, ‘침상’, ‘상심’으로 묶인다. 화조는 발레리나의 착지와 함께 수평을 이루는 밑바닥으로 하강하며 수풀의 침상에서 상심하는 정신적인 하강을 체험한다.

- (2) ① 家雁 · 키웠느니
- ② · 울음 꿈
- ③ 가브리엘 . . . 갈 . . .
- ④ 곤두서 단면
- ⑤ 물소리 風散

<그림 2>

(2)연부터는 수직과 상승, 수평과 하강의 인지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기호의 분포 밀도가 낮아지고 있다. 인지주체는 발레리나의 ‘蹣跚’을 보며 자신의 상승 욕구에 동기를 부여 받아 ‘꿈’을 갖게 된다. 그래서 수평적인 지면의 ‘뜨락’에서 ‘家雁’을 키우고 있다. ‘家雁’의 ‘울음’은 성서에 나오는 천상의

21) 인지 모델(cognitive model)이라는 개념은 어휘적 개념이 의미구성에 기여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인지 모델은 응집적이고 주로 비언어적인 지식 구조이다(Vyvyan Evans, 임지룡·김동환 역, 『인지언어학 용어사전』, 한국문화사, 2010, 43면).

대천사 ‘가브리엘’에게 간다. 그때 문득 시간은 수직의 단면을 보이며 ‘나’는 ‘뼈들’이 흩어지며 자아가 해체된다.

여기에서 수직적 상승의 인지 모델을 의미하는 카테고리룰 이루는 언어기호는 ‘울음’, ‘꿈’, ‘가브리엘’ 등이다. 대천사 ‘가브리엘’은 수직과 상승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천사는 수직으로 높은 천상에 있으면서도 유동적이어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가브리엘’의 인지기호는 인지주체가 천상으로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의 심층적인 곳에 시인의 종교적 배경이 바탕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하게 한다. 이러한 배경은 천상으로의 상승적 의식을 갖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연의 언어기호가 수렴하는 초월적 의미는 ‘風散’이다. 인지주체는 자신의 ‘뼈들’이 바람에 흩어지는 체험을 한다. 그것은 곧 자아의 해체를 의미한다. 한편 갈등을 의미하는 인지기호는 지상에서의 고민과 무거움이 일어나는 ‘뜨락’이다. 인지주체는 그 뜨락에서 갈등하며 ‘꿈’을 꾸기도 한다.

- (3) ① 음식· 어둠·
- ② . 바다· 고기때· 살
- ③ 아픔·
- ④ . . . 絃琴· 타오르고 떨리어
- ⑤ . . 혼·

<그림 3>

(3)연의 인지주체는 수직으로 상승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인지주체의 욕신은 천상으로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 인지주체의 욕신을 이루고 있는 ‘살’은 ‘음식’으로 환하게 밝히기도 한다. ‘어둠’은 ‘음식’과 대립적인 이미지로 몸을 밝히는 음식과 대립적 균형을 이루는 인지기호이다. 또한 몸의 감각은 거문고 소리로 일깨워 ‘타오르’듯 떨리게 한다. 공중으로 상승하기 위한 이러한 과정은 인지주체를 존재하게 하는 ‘살’에 감각을 일깨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수직적 상승을 하는 주체적인 언어적 인지기호의 카테고리는 ‘살’과 ‘혼’으로 ‘타오르’고 ‘떨리’게 한다. (2)연에서 인지주체의 자아가 해체되었다면, (3)

연에서는 다시 자아를 회복해서 상승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수평적 하강의 인지 모델을 나타내는 카테고리로 묶이는 언어기호는 ‘바다’와 ‘어둠’이다. ‘바다’는 세상의 모든 ‘어둠’까지도 품어 안고 ‘고기떼’를 기르고 있다.

‘살’은 ‘곳’과 ‘때’의 시발점으로 시간과 공간을 감성의 선형적 형식이라 한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살’은 존재의 원소이다.²²⁾ 이러한 ‘살’은 시간의 공간화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상승을 위한 ‘때’를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3)연의 인지 모델 ‘갈등’을 나타내는 카테고리의 언어기호는 ‘바다’, ‘고기떼’, ‘싸움’ 등이다. 바닷속의 ‘고기떼’는 ‘살’이 되어 힘을 주기도 하지만, 지상에서 갈등을 사상하는 매체이기도 하다. 인지주체의 오감은 ‘絃琴’으로 ‘타오르게 하므로, ‘絃琴’은 인지 모델 ‘초월’을 이끄는 인지기호이다. 이렇듯 인지주체는 상승을 위해 몸을 만들고 있다.

- (4) ① 극치·웃음 . . .
- ②
- ③ 질주
- ④ 마룻장 . . . 새 . . . 꺼내듯이
- ⑤ 살·뽀고 . . . 빛
- ⑥ 승전
- ⑦ 망명

<그림 4>

(4)연의 인지주체는 발레리나가 무용을 통해 공중으로 상승할 때 같이하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인지주체에게는 공중으로 상승하는 일 외에는 ‘극치’의 ‘웃음’을 주는 일이 없다고 한다. 그만큼 상승에 대한 욕망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춤은 무거움을 가벼움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며 존재의 생성을 긍정한다. 춤으로 비롯된 웃음은 고통을 기쁨으로 전환시킨다. 나아가 춤의 의미는 다수와 다수의 하나를 긍정하는 것으로 의미를 확장한다.²³⁾

22) 조광제, 『주름진 작은 몸들로 된 몸』, 철학과현실사, 2003, 152~153면.

23) 질 들뢰즈, 이정신 역, 『니체와 철학』, 민음사, 2010, 332면.

수직적 상승을 상징하는 카테고리의 언어적 인지기호는 ‘극치’, ‘웃음’, ‘빛’, ‘질주’, ‘새’, ‘마룻장’ 등이 있다. 이러한 언어기호는 인지주체를 상승적인 기운으로 이끈다. 인지주체에게는 발레리나가 “극치의 웃음”을 보이며 “질주”하는 일 외에는 “다시 좋은 일”이 없다고 한다. 발레리나는 ‘마룻장’에서 ‘새들’을 꺼낸다. 그 ‘새들은 (1)연에서 표현된 것처럼 발레리나를 상승하게 하는 동력을 주는 인지기호이다. 여기 (4)연에서의 특징은 하강적인 이미지를 주는 언어적 인지기호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4)연의 상승 지향적인 의미구조를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다.

또한 (4)연에서는 갈등을 의미하는 언어기호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4)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상승적이고 초월적이다. ‘초월’의 인지 모델을 나타내는 카테고리 언어기호는 ‘극치’, ‘승전’, ‘빛’, ‘웃음’, ‘살’, ‘망명’ 등으로 가족적 유사성을 이루고 있다. 인지주체는 발레리나의 ‘극치’의 ‘웃음’이 있으며 ‘빛’이 있는 ‘승전’ 속으로 ‘망명’하고자 하는 바램이 강하다. 여기에서의 ‘망명’은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빛’이 있는 세계로의 상승을 의미하므로 초월적 의미영역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이 텍스트의 언어적 인지기호는 수직적 상승과 하강의 양상으로 의미의 역동성을 부여하며 인지체계와 상상력 구조의 밑바탕을 이룬다. 이러한 인지기호의 특성은 인지의미 구조를 구축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

3. 단면화된 시간의 인지구조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는 세상 경험을 구조화한다. 이러한 착상은 은유 이해의 현상학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개념 구조로서의 은유에 대한 견해는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시간적 연속의 많은 시점에 적용된다.²⁴⁾ 그 의미는 경험에 일관성과 구조를 제공하는 체험적 게슈탈트(experiential gestalt)²⁵⁾의 수준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개념적 은유는 긴밀한

24) 레이먼드 W·깁스, 나익주 역, 『마음의 시학』, 한국문화사, 2003, 330~331면.

25) 체험적 게슈탈트(experiential gestalt)는 구조화된 다차원적 전체이다. 구조화된 전체의 차원은 직접적으로 창발하는 개념의 관점에서 정의되며, 우리의 경험 속의 정합성(coherence)

사상(mapping)²⁶⁾을 제시한다.

정현종의 「화음」에 나타난 인지정보를 연과 행으로 나누어서 면밀하게 분석해보는 것은 의미구조의 파악을 위해 섬세한 결이 된다. 다음에 보여지는 <표 2>의 인지정보는 텍스트 내에서의 의미구조를 살피기 위한 토대가 된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인지대상이 다채롭게 등장하는 특성이 보인다. <표 2>에 펼쳐진 의미 영역의 활성화는 시간 은유의 공간화 양상으로 드러나 있다.

이 시의 인지정보는 인지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다시 현재로 이동하며, 인지공간은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인지주체의 상승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인지주체와 인지대상은 심층적으로 중첩되어 보이지만 표층적으로 드러난 인지대상을 표기한다. 이러한 인지정보 분석은 의미구조에 대한 분석의 바탕을 이룬다.

<표 2> 「화음」의 인지정보

연	행	인지 대상	인지 공간	인지 시간	인지 감각	인지 상황	인지 행위	인지 심리	인지 의미	
(1)	①	그대	천상	현재	시각	상승	발레의 점프와 착지	기쁨	상승의 실현	
	②	일광								
	③	화염								
	④		촉각							
	⑤	火鳥	지상 (수풀)		청각	하강		상심		하강의 상심
	⑥									
(2)	①	家雁	지상 (뜨락)	과거	청각	시간의 정지	꿈의 성장과 상승 기대	비상 욕구	상승의 꿈	
	②									
	③									
	④	시간	천상		시각			해체	시간의 정지와 해체	
	⑤				청각					

을 이해하는 열쇠(G·레이코프, M·존슨, 앞의 책, 160면).

26) 사상(mapping)은 개념적 체계의 지역 내에 내재하는 실체들 간의 대응을 말한다. 사상은 일반적으로 개념적 은유 이론과 연상되고 영역횡단 사상으로 알려져 있다(Vyvan Evans, 앞의 책, 161면).

(3)	①	음식 어둠	살	현재	시각	몸 감각의 변화	싸움 준비	만족	융화
	②	살			촉각			떨림	
	③								
	④		絃琴		천상			감각의 활성	
	⑤								
(4)	①	그대	천상	현재	청각	발레리나 에 대한 기대	새 꺼내기	극치	그대의성취 에 편승 하고자 하는 간절함
	②								
	③								
	④	새	마룻장		시각		망명 기대	바람	
	⑤	빛	살, 갑옷						
	⑥	그대	승전		촉각				
	⑦								

정현종의 「화음」에 드러난 인지시간은 다층적인 인지 구조를 보이고 있다. 무용은 공간 예술이자 시간 예술이다. 몸짓의 흐름은 시간의 흐름 위에서 존재한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를 향한다. ‘시간’은 단일 방향으로 흐르다가 문득 곤두서 ‘단면’을 보이며 공간화를 이룬다. 이 장에서는 텍스트의 인지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²⁷⁾와 이미지 도식(*image schema*)²⁸⁾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은유적인 시어는 몸이 원초적으로 떨리는 것에 가깝다. ‘춤’은 몸의 떨림이 어디에선가 오는 연속적인 몸짓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예술은 우주의 음악 즉 우주 전체의 리듬과 떨림을 표현하는 것이다.²⁹⁾

문학은 상상력의 산물이며 그 상상력을 좇아 인식의 지평을 넓힌다. 우리는 「화음」의 인지대상 발레리나를 따라가다가 시간은유의 공간화된 양상과

27)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 이론은 은유가 단순히 언어의 문체적 자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고 자체가 본질상 은유적이라는 것이다. 개념적 구조는 영역횡단 사상, 즉 개념적 영역들 간의 대응관계에 따라 조직된다(Vyvyan Evans, 앞의 책, 56면).

28) 이미지 도식(*image schema*)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 형판으로 사용하는 정신적 그림이다(피터 스톡웰, 이정화·서소아 역,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40면).

29) 조광제, 앞의 책, 304면.

만나게 된다. ‘시간’ 개념은 유한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철학적 화두다. 정현중은 텍스트 「화염」 안에 발레리나를 설정해놓고 시간은유를 공간화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그 미학의 경계는 인간의 잠재된 의식의 저편을 구체화된 공간 영역으로 보여준다.

- (1) ① 그대 불붙는 눈썹 속에서 일광
- ② 은 저의 머나먼 항해를 잡고
- ③ 화염은 타올라 踊躍의 발끝은 당당히
- ④ 내려오는 별빛의 서늘한 勝戰 속으로 달려간다.
- ⑤ 그대 발바닥의 火鳥들은 킁킁거리며
- ⑥ 수풀의 침상에 상심하는 제,

(1)에서 인지주체 ‘나’는 인지대상 ‘발레리나’의 몸짓을 보고 있다. 발레리나는 공중으로 踊躍하고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에서 ‘상심’의 인지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발레리나가 ‘踊躍’하는 순간은 어두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 ‘화염’은 어두운 배경에서 인지주체의 율동을 시각적으로 부각되게 한다.

상승의 동력원인 ‘화염’은 발레리나의 ‘踊躍’을 강조하고 있다. 인지공간은 공중으로 ‘별빛’이 내리는 곳이다. ‘별빛’의 ‘서늘한 勝戰’은 인지대상과 인지주체의 적절한 정서적 거리를 축각화해서 표현한다. ‘별빛’은 과학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시공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을 은유한다. 발레리나가 ‘踊躍’한 시간은 오랜 노력에 의해 얻어진 반짝임이 있는 공간으로 은유된다. 여기에는 [시간은 빛]³⁰⁾의 은유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시간은 순간적으로 소멸하는 특성이 빛과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저에는 [시간은 보석]의 은유가 유추된다. 보석은 빛을 내는 속성이 있다. 빛의 의미는 귀하기도 하고 반짝이는 물리적 특성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빛’과 ‘보석’은 시간을 사상한다. 한편 인지기호 ‘속으로’는 ‘별빛’이 존재하는 공중을 공간화해서 강조하며 시간에 대한 은유를 공간화한다.

‘火鳥’들은 발레리나가 지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심’하고 있다. 수직 상

30) 이 글에서는 개념적 은유에 대해 [] 표기를 한다.

승하고자 하는 인간의 꿈은 ‘火鳥들’에게도 감정이입이 되어 인지된다. 이처럼 (1)연은 무용수가 공중으로 상승을 실현한 인지심리인 기쁨이 나타난 후 하강의 인지심리 ‘상심’을 ‘火鳥’를 매체로 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 (2) ① 나는 그 동안 뜨락에 家雁을 키웠느니
 ② 그 울음이 내 아침의 꿈을 적시고
 ③ 뒤통거리며 가브리엘에게 갈 적에
 ④ 시간은 문득 곧두서 단면을 보이며
 ⑤ 물소리처럼 시원한 내 뼈들의 風散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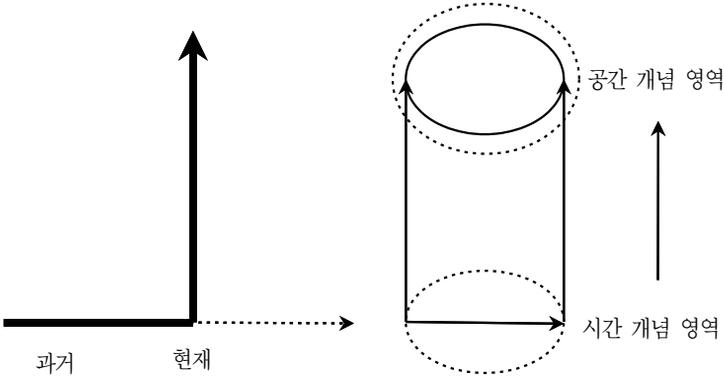
(2)연은 텍스트 의미구조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④행의 구절 “시간은 문득 곧두서 단면을 보이며”³¹⁾는 시간이 정지된 순간을 공간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 축을 중심으로 시간은 정지된 채 인지주체의 독백체로 서술된다. (2)연은 인지시간이 과거로 회귀한다. 시간은 이미 그 과거 어느 때에 정지되어 주체의 해체를 보고 있다. 그때의 ‘뼈들’은 이미 흩어져서 인지주체의 의지는 자꾸만 하늘을 향해 가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은 공간]의 은유가 바탕하고 있다. 이 개념적 은유는 공간이 시간을 사상하고 있다. 한편 나아가서 [공간은 시간]의 은유가 이끌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의 공간화와 공간의 시간화로 설명된다. 시간의 정지는 공간의 단면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연에서 흐르는 시간은 ‘단면’의 공간을 보이며 정지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현종이 갖고 있는 시간 의식의 한 면을 확인하게 된다. 현실적인 한계는 시간을 넘어설 수 없다는 역설이다. 그러나 시적인 상상력은 시간을 공간화해서 은유하고 있다. 그 공간화된 시간은 다른 시간은유의 공간화를 낳는다.

(1)연의 인지공간은 공중에서 지상/수풀로 이동한다면, (2)연에서는 지상/뜨락에서 천상으로 이동한다. 인지주체 ‘나’는 인지공간 지상의 ‘뜨락’에서 ‘家雁’을 키우고 있으며, ‘家雁’을 키워 발레리나처럼 ‘踊躍’하고 싶은 꿈을 갖고

31) 정현종의 산문에는 『화음』의 (2)연 ④행과 유사한 발상이 드러난 부분이 있다. “평면으로 흐르는 시간을 잘라서 그 단면을 보라. 거기 곧두선 수직의 시간이 전율하고 있다.”(정현종, 『꿈꾸는 자의 내면 일기』,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민음사, 1975, 20면)

있다. ‘家雁’의 울음은 ‘나’의 ‘아침의 꿈’을 적시고 하늘에 있는 계시 천사 가브리엘에게 닿는다. “가브리엘 대천사를 향해 가는 꿈은 날카롭게 일어서는 시간의 이미지와 연결되어”³²⁾ 그러한 순간 문득 시간은 단면을 보이듯 정지하게 된다. 인지주체는 시간이 정지된 상황이어야만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인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간은유를 공간화한 양상은 다음의 이미지 도식으로 도출된다.



<수직 상승의 시간 이동>

<시간 개념의 공간화 양상>

<그림 5>

<그림 6>

개념적 은유 [행위 방법은 이동 방법](MANNER OF ACTION IS MANNER OF MOVEMENT)³³⁾은 도식 형성의 과정을 설명한다. 이동 방법은 행위 방법을 사상한다. 우리는 인지주체가 사건이나 행위에 임하는 태도를 다양한 이동 방법을 통해 인지한다. (2)연의 의미는 <그림 5>와 <그림 6>의 이미지도식 모형으로 그려진다. <그림 5>는 [상태 변화는 경로 변화]의 은유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이어서 [상태 변화는 위치 변화]의 개념적 은유를 이끌어

32) 김정란, 『정현중, 꿈의 사제- 정현중의 상상적 체계, <사물의 꿈>을 중심으로』, 이광호, 앞의 책, 문학과학사, 1999, 247면.

33) 임혜원, 『공간 개념의 은유적 확장』, 한국문화사, 2004, 13면.

낸다. 다시 말해 ‘경로 변화’는 ‘위치 변화’를 이끌고 이러한 근원영역(source domain)은 목표영역(target domain) ‘상태 변화’를 사상한다. 이처럼 방향성이 있는 과정은 이미지도식이 수직적 이미지도식으로 변화되는 양상이다. 수직적 이미지도식의 내적 논리는 경로 이미지도식으로부터 핵심적인 개념적 구조를 이끌어낸다.³⁴⁾ <그림 6>은 시간 개념 영역에서 공간 개념 영역으로의 은유적 확장이 나타난 양상이다. 이러한 도식은 공간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비공간적 개념을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은유적 개념화 방식을 보여준다.³⁵⁾

시간의 정지를 곤두선 수직의 단면으로 표현하는 것은 경로도식(paths schema)³⁶⁾으로 나타난다. 시간은 수직을 향해 이동해서 단면을 이루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6>은 시간이 단일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로도식이 공간을 형성하는 모형으로 (2)연 ④행의 ‘시간은 문득 곤두서 단면을 보이며’의 의미를 나타낸다. 흐르던 시간은 수직으로 솟아오른다. 그 시간 영역은 중층적인 공간영역을 확장하게 한다. 공간 개념 영역과 시간 개념 영역은 서로 합체되어 이미지 도식으로 나타난다.³⁷⁾

공간에서의 주변 영역 개념은 시간에서의 시작점 또는 끝점 개념으로 은유적으로 확장된 것을 나타낸다.³⁸⁾ 이것은 비공간적 개념을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은유적 개념화 방식을 보여주며 시간 개념 영역에서 공간 개념 영역으로의 은유적 확장을 의미한다. 그 의미는 공간 개념이 시간 개념과 같은 추상적 개념으로 은유적 확장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화음』에서 발레리나의 발레는 공간의 시간화이며 시간의 공간화 양상으로 드러난다. 무용은 시간과 공간을 전경(figure)과 배경(ground)³⁹⁾으

34) M·Sandra Pena, 임지룡·김동환 역, 『은유와 영상도식』, 한국문화사, 2006, 283~284면.

35) 임혜원, 앞의 책 67면.

36) 경로 도식은 ‘길 도식’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길 도식은 ‘~에서 ~으로’의 구조를 지닌 과정의 도식이다. 이 글에서는 ‘경로 도식’으로 표기한다(양병호, 앞의 책, 32면).

37) 시간 은유의 공간화 양상에 대한 이미지 도식은 4장에서 그려본다.

38) 임혜원, 앞의 책, 67면.

39) 전경-배경 조직(figure-ground organisation)에서 전경은 다른 부분에 비해 뚜렷한 윤곽이나 두드러진 색채로 인해 현저한 모양을 가진 실체다. 전경은 배경에 대비해서 부각되며, 배경은 ‘裏面’으로 분류되는 장면의 부분을 말한다(Vyvyan Evans, 앞의 책, 105면).

로 전도하는 몸짓 예술이기 때문이다. 이 시는 정현종의 시간에 대한 의식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텍스트의 제목인 ‘和音’에서도 의미를 읽을 수 있다. 그 의미는 시간과 공간의 조화이다. 이러한 의미는 더 나아가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와의 조화와 천상과 지상의 조화로 의미 확장(extension)을 이룬다.

- (3) ① 그뒤에 땀은 음식과 어둠은
 ② 원 바다의 고기떼처럼 살 속에서 놀아
 ③ 아픔으로 환히 밝기도 하며
 ④ 오감의 絃琴들은 타오르고 떨리어
 ⑤ 아픈 혼만큼이나 싸움을 익혀가느니

(3)연의 첫 어절 ‘그뒤에’는 (2)연의 상황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시간’은 ‘곶두서’서 ‘단면’이 된다. 인지주체 몸의 ‘살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난다. ‘음식’과 ‘어둠’은 ‘살 속’으로 들어와 융화된다. 이렇듯 융화된 상태는 아픔으로 환하게 밝기도 하다는 역설적인 설정을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인지주체가 상승적 기운을 준비한다는 설정이다. ‘絃琴’들은 ‘오감’을 자극하며 ‘타오르’고 ‘떨리어’ 싸움을 익히고 있다. 인지주체는 상승을 위해 싸움을 익혀가며 내면의 힘을 쌓고 있다.

(3)연은 개념 은유 [원기는 물질](VITALITY IS A SUBSTANCE)⁴⁰)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음식은 원기를 생성하는 물질로 인지주체의 상승을 돕는다. 그 다음은 [능동은 위/ 수동은 아래](ACTIVE IS UP ; PASSIVE IS DOWN)⁴¹)의 개념 은유로 나아간다. 인지주체는 상승을 위해 세상과 융화하며 오감을 활성화한다. 이렇듯 인지주체의 능동적인 태도는 시간이 정태적인 상황에서 활기를 보이고 있다.

인지공간은 ‘살’에서 ‘천상’으로 이동한다. 인지주체의 ‘살 속’은 주변의 사물과 시간들이 녹아 공간을 만든다. 사물인 ‘음식’과 시간개념인 ‘어둠’은 ‘고기떼’처럼 ‘살 속’에서 놀아 아픔으로 환하게 밝기도 한다. 그때 모든 감각은

40) G·레이코프, M·존슨, 앞의 책, 115면.

41) G·레이코프, M·존슨, 앞의 책, 57면.

거문고 줄을 타고 ‘싸움’을 익힌다. 인지감각은 시각에서 촉각으로 전이되면서 섬세해진다. 몸의 삶은 인지공간의 확대가 이루어진 양상이다. 텍스트의 제목인 ‘和音’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오감의 絃琴들’은 ‘타오르’고 ‘떨리’는 것이 바로 和音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和音에 의해 인지주체는 꿈의 공간으로 상승하고자 한다. 인지주체는 독단적이지 않고 세상과 융화해서 아름다운 和音을 이루고 모두의 꿈을 향해 가고자 한다. 그곳은 시간이 공간화된 곳이다.

- (4) ① 그대의 숨긴 극치의 웃음 속에
 ② 지금 다시 좋은 일이 더 있을리야
 ③ 그대의 질주에 대해 궁금하고 궁금한 그 외에는
 ④ 그대가 끊임없이 마룻장에서 새들을 꺼내듯이
 ⑤ 살이 뵈고 있는 빛의 갑옷의
 ⑥ 그대의 서늘한 승전 속으로
 ⑦ 망명하고 싶은 그외에는.

이 시의 (4)연은 인지주체가 발레리나의 성취에 편승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인지대상의 이동은 ‘그대’, ‘새’, ‘빛’, ‘그대’로 향한다. 이러한 인지대상은 모두 가벼움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대’인 발레리나는 공중으로 질주하고, ‘새’는 날아가는 것이 특성이고, ‘빛’은 헤아릴 수 없이 빠른 속도로 간다. 시인은 마지막 연에서 이렇듯 상승하고자 하는 간절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4)연에서 유추되는 개념 은유는 [좋은은 위/ 나쁨은 아래](MORE IS UP ; LESS IS DOWN)⁴²⁾가 바탕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인지주체의 바람을 나타내는 지향 은유⁴³⁾이다. 천상은 인지주체와 인지대상에게 모두 닿고 싶은 좋은 곳이다. 지상에 있는 것은 나쁨으로 인지된다. 여기에서 [행복은 위/ 슬픔은 아래](HAPPY IS UP ; SAD IS DOWN)⁴⁴⁾라는 개념적 지향 은유가 이

42) G·레이코프, M·존슨, 앞의 책, 44면.

43) 지향적(orientational)은유는 여러 개념 체계들이 상호 관련되어 전체 체계를 구조화하는 것으로, 공간적 방향(위-아래, 안-밖, 앞-뒤, 중심-주변 등)과 관련이 있으며, 어떤 한 개념에 대해 공간적 지향성을 부여한다(양병호, 앞의 책, 46~47면).

44) G·레이코프, M·존슨, 앞의 책, 38면.

떨어진다. 결국 실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행복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로 향한 상승 지향에서 이루어진다. 상승하기 전에 천상의 아래에 있는 것은 슬픔이다. 다시 말해 천상으로 상승은 좋음과 행복을 위한 지향으로 나타난다.

(4)연은 인지감각의 ‘청각’, ‘시각’, ‘촉각’을 고루 활용해서 의미감각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2)연에서 시간은 이미 단면을 보이며 공간화되어 정지해 있다. 그런 맥락에서 (4)연의 인지공간은 ‘공중’, ‘마룻장’, ‘살’, ‘잡옷’, ‘승전’으로 나타난다. 시간의 은유는 공간화되어 인지주체의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마룻장에서 새들을 꺼내듯이’의 구절은 시간의 공간에서 자유의지를 발현하는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인지주체는 ‘그대’의 ‘질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과 ‘그대’의 승전으로 편승해서 망명하고 싶은 간절함 외에는 ‘좋은 일’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렇듯 시인은 시간을 공간화해서 새로운 인지영역을 만들어낸다. 그는 그곳에서 실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꿈을 꾸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화음』은 단면화된 시간의 인지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인지구조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선상에서 끈두신 시간의 단면을 축으로 인지주체의 내면과 인지대상의 외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인지주체는 단면화된 시간의 공간에서 내면의식의 상승하고자 하는 바람을 인지하고 있다.

4. 공간화된 초월적 인지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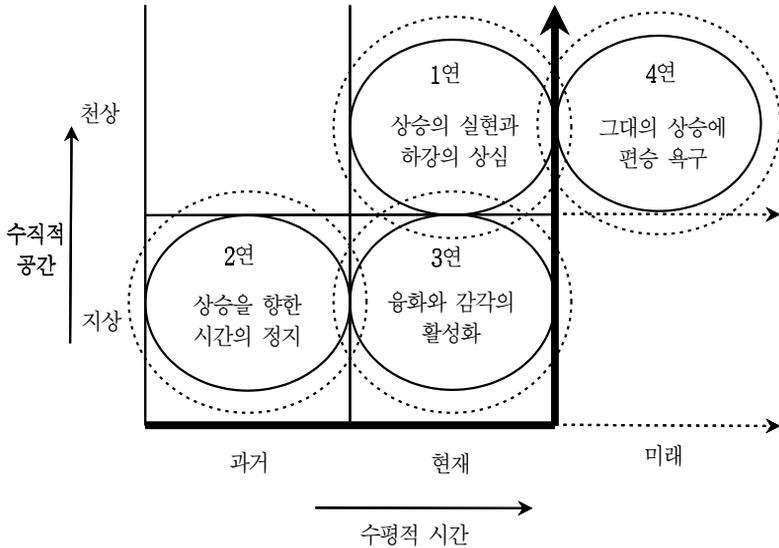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정현종의 『화음』에 대해 시간은유의 공간화 양상을 종합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그림 5>와 <그림 6>은 종합적인 시간 은유의 공간화 양상에 대한 이미지 도식(image schema)을 나타내는 근간이 된다. 시간은 공간화되어 입체적인 도식으로 드러난다. 시간은 움직이지 않고 공간은 영역화가 일어난다. 이미지 도식은 시간영역과 공간영역이 합체된 형상으로, 그릇 도식(container schema)⁴⁵과 경로 도식(path schema)의

45) 그릇 도식(container schema)은 용기 도식이라고도 표기하며, 가장 중심적인 인지적 형판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어떤 실체를 공간의 한정 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M·Sandra Pena, 앞의 책, 81~85면).

융합으로 나타나며 시간 은유가 공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향성은 내면의 의식을 그 본질적 구조에서 대상과의 관계를 해명하고 파악하려 하는 것으로, 인간과 대상과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지적 감성적 체험을 특징짓는다.⁴⁶⁾ 이러한 지향성은 인지주체에 의해 지향성의 축의 방향으로 증폭되며 환기하는 내용 범위가 확대되며 활성화를 이룬다.

정현중은 「화음」에서 공간화된 초월적 인지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실존적 현실을 초월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는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사유를 형상화하기에 다층적인 의미 산출을 이루어낸다. 이 시에서 인지주체는 의미구조적으로 주체이면서 동시에 인지대상으로 역할을 한다. 달리 말해 인지주체는 전경(**figure**)과 배경(**ground**)으로 전도되어 나타난다. 인지주체는 지상에서의 한계를 시간을 공간화해서 초월한다.



<시간 은유의 공간화 양상>

<그림 7>

46) 훗설, 이영호 역, 『현상학의 이념』, 세계사상전집, 38, 삼성출판사, 1978, 109면.

이미지 도식(image schema)은 공간적 추론을 가능케 하는 내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다.⁴⁷⁾ 텍스트에 나타난 다층적인 구조는 이미지 도식으로 나타난다. <그림 7>의 이미지 도식은 다양한 의미 구조를 이끌고 있다. <그림 7>은 앞에서 보여진 경로 도식(path schema)과 그릇 도식(container schema)이 합체가 되어 형성된다. 그릇 이미지도식은 가장 중심적인 인지적 형태 중의 하나로 감정 개념화에 대해 알 수 있는 수단 역할을 한다.⁴⁸⁾

이러한 양상은 [추상적 실체는 그릇]의 개념 은유를 바탕으로 하며, 추상적 실체인 인지의미를 그릇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개념적 은유는 그릇을 추상적 실체에 사상한다. 그 의미는 더 나아가 [마음은 감정이 실린 사고를 담는 그릇]의 개념 은유를 이끌어낸다. 인지주체의 마음은 텍스트의 인지의미로 드러난다. ‘사고를 담는 그릇’은 ‘마음’을 사상한다. 이 의미는 머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음 또한 그 내부에 사고를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⁴⁹⁾ 이미지 도식 위에 나타난 공간은 텍스트의 표층적이고 심층적인 의미를 추론하게 한다. 이러한 논리는 언어적 인지기호로 구성된 텍스트의 의미를 산출하는 인지구조와 인지지향을 드러낸다.

이 시의 (1)연에서는 표층적인 인지대상 발레리나가 무용하는 한 장면을 형상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발레리나의 몸짓은 시간을 공간화해서 드러난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를 기준으로 과거가 우리의 뒤에 위치하고, 미래가 우리의 앞에 위치한 것과 같이 인지한다.⁵⁰⁾ <그림 7>은 텍스트의 인지의미를 시간과 공간 안에 인지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시간 영역은 텍스트의 각 연에 중심으로 파악되는 시제로 구분한다. 한편 공간은 텍스트의 의미영역에서 천상과 지상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이 시는 (1)연에서 (4)연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 천상으로 상승하는 구조이다. 그 양상은 시인의 상승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성은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 안과 밖이 동시에 공존하는 역동성을 창발한다.

이러한 인지는 개념적 은유 [지향(志向)은 이동 방향]을 바탕으로 한다. 시

47) G·레이코프, M·터너, 앞의 책, 134면.

48) M·Sandra Pena, 앞의 책, 81면.

49) M·Sandra Pena, 앞의 책, 105면.

50) 임혜원, 앞의 책, 93면.

간은 단일방향으로 계속 이동한다. 그러나 이 시의 (2)연에서 ‘시간’은 문득 ‘곤두서’서 ‘단면’을 보이면서 공간화된다. 이 경우는 개념 은유 [변화는 이동]을 이끌어낸다. 이렇듯 이 시에서는 ‘시간’은 ‘곤두서’서 ‘수직의 단면’을 보인다고 설정한다. 변화의 가장 궁극적인 요인은 ‘시간’이다. ‘시간’ 자체가 항상 일정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시간’ 경과에 따라 사건은 변화하고 있다고 인지하기 때문이다.⁵¹⁾ (2)연에서의 ‘시간’은 움직이지 않고 ‘공간’은 그 ‘시간’ 영역 안에서 다층적인 영역들을 형성한다. 그 영역은 의미확장을 이루기 위해 연쇄적으로 걸쳐있다.

<그림 7>은 시간의 경로에 공간의 그릇이 지상과 천상의 경계를 두고 상하로 배치되어 있다. 그릇 도식에 담긴 인지의미는 <그림 7>에서 보여지듯 (1)연은 발레리나의 상승의 실현과 하강의 상심을 표현하고 있다. (2)연에서 인지주체는 상심을 뒤로 하고 상승을 향한 준비를 하며, 시간은 단면을 보이며 정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3)연에서는 인지주체가 세상과 융화하고 상승하기 위한 감각의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 (4)연은 인지대상 ‘그대’의 상승에 편승을 간절히 바라는 인지주체의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2)연에서 과거로 가는 시간의 역행적 인지를 보이고 있다. 각 연에 나타난 인지지향의 시간은유의 공간화 양상은 (1)연의 현재의 천상에서 (2)연의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지상으로 내려온다. 한편 (3)연은 현재의 지상에 있고, (4)연은 미래의 천상으로 향한다. (1)연과 (4)연은 도식에서 나타나듯 천상적 공간에 있다.

<그림 7>에서 보여지듯 시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선상에서 현재의 시간 축을 중심으로 수직 단면화된 상태이다. (1)연과 (4)연은 천상의 공간에서 현재와 미래의 분리선을 중심으로 대칭한다. 한편 (2)연과 (3)연은 지상의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의 분리선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룬다. 이렇듯 인지시학적인 관점에서 시간은유의 공간화 양상을 나타내는 이미지 도식(image schema)은 텍스트의 의미 생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현종의 「화음」은 인지시학적인 관점에서 시간은유의 공간화 양상⁵²⁾을 보인다. ‘발레’는 시간과 공간이 조형되는 몸짓 예술이다.

51) 임혜원, 앞의 책, 101면.

인지 모델 ‘시간’과 ‘공간’의 결합은 새로운 인지의미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이 시에 나타난 시간 은유의 공간화 양상은 시간이 공간화된 초월적 인지기향으로 의미 확장을 이룬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정현종의 『화음』을 인지시학적 관점에서 시간은유의 공간화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인지기호로서의 언어적 특성을 살펴보고 개념적 은유를 바탕으로 하는 인지구조를 이미지 도식으로 나타내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텍스트의 인지기향을 드러낸다. 결론은 본문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먼저, 『화음』의 언어적 인지기호는 ‘수직과 수평’, ‘상승과 하강’으로 분류되는 이원적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이원적 양상은 형이상학의 철학적 주제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대립 구조를 드러낸다. 이러한 구조는 의미적으로 ‘초월과 갈등’의 인지의미로 수렴된다. 이처럼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인지기호의 대립 구조는 역동성의 근간이 되며, 상상력의 진폭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인지구조는 시간이 단면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정현종은 이 시에서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상징하는 ‘시간’ 개념을 공간화해서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초월을 시도한다. 이러한 시간은유의 공간화 양상은 작품의 전면 에 걸쳐 시공간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인지상황에서 인지주체는 인지대상 ‘발레리나’가 행하는 천상로의 상승에 편승하고자 한다. 인지주체는 시간이 단면화된 상태에서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한다. 철학적 화두인 ‘시간’이 공간화된 인지상황의 인지주체는 그 ‘공간’에서 용약을 꿈꾸고 있다. 여기에서 인지주체는 인지대상과 의지적으로 중첩되게 인지된다. 다시 말해 인지대상 발레리나는 인지주체의 의지가 투사되어 설정된다. 이 시에 드러난 시간은유가 공간화된 양상에서 인지주체와 인지대상의 초월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52) ‘시간은유의 공간화 양상’은 다음의 글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무”는 “무한”하면서 “生氣”를 함유하고 있으니 “무한한 유”를 함유한 것과 같다. 이러한 “무”와 “유”의 연속적 과정은 “형이상학적인 도”가 구체화되는 활동과정을 드러낸다(박은희 역해, 『노자』, 고려원, 1997, 14면 참조).

이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화음」의 인지지향은 시간은유가 공간화되는 초월적 양상으로 확산된다. 시간은유를 공간화한 구성은 실존적 한계의 초월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경로 도식과 그릇 도식의 합체로 형성되는 이미지 도식으로 확인된다. 인지주체는 발레리나의 상승 실현과 하강의 상심을 인지하고, 상승을 향한 꿈을 키우면서 시간이 정지된 공간에서 감각을 활성화하며, 발레리나의 상승에 편승하고자 열망한다. 이렇듯 정지된 시간의 단면을 중심으로 좌우 공간에 수직 상승하며 인지주체의 내면의식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시공간을 초월한 의미의 자장을 이루고 있다.

정현종은 「화음」에서 예술이 삶을 견딘다는 감수성으로, 시대와 인생의 무거움을 발레리는 아름다운 무용 예술로 극복하려하는 의지를 형상화한다. 그 방법은 시인이 무거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건강한 가벼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실존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시인은 시간이 문득 곤두서 단면을 보이는 인지적 순간을 공간화해서 내면의식을 발현한다. 시간이 공간화된 곳은 인지주체와 인지대상이 융합을 이루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이 글에서는 인지시학적인 관점으로 정현종의 「화음」에 드러난 형이상학의 화두인 ‘시간’에 대한 은유를 공간화해서 의미영역을 이루는 양상을 밝혀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공간이 극화되어 의미의 활성화를 이루는 그의 시세계의 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정현종의 전반적인 시에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일은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시>

정현중, 『정현중 시 전집 1』, 문학과지성사, 2008.

<산문>

정현중, 『꿈꾸는 자의 내면 일기』,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민음사, 1975.

정현중, 『춤·몸·탄력(시와 무용)』, 『생명의 황홀』, 세계사, 1989.

정현중, 『시란 무엇인가』, 이광호 엮음, 『정현중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정현중·이광호 대담, 『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광호 엮음, 『정현중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2. 단행본

김병익·김 현 편, 『우리 시대의 작가연구총서 정현중』, 은애, 1979.

박은희 역해, 『노자』, 고려원, 1997.

양병호, 『한국 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 태학사, 2005.

이광호, 『정현중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이승훈, 『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전』, 푸른사상, 2009.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8.

임혜원, 『공간 개념의 은유적 확장』, 한국문화사, 2004.

조광제, 『주름진 작은 몸들로 된 몸』, 철학과현실사, 2003.

최현무, 『한국문학과 기호학』, 문학과비평사, 1992.

레이먼드 W·킵스, 나익주 역, 『마음의 시학』, 한국문화사, 2003.

M·Sandra Pena, 임지룡·김동환 역, 『은유와 영상도식』, 한국문화사, 2006.

M·존슨, 이기우 역, 『마음 속의 몸』, 한국문화사, 1992.

Vyvyan Evans, 임지룡·김동환 역, 『인지언어학 용어사전』, 한국문화사.

움베르토 에코, 김성도 역, 『기호학과 언어철학』, 열린책들, 2009.

G·레이코프, M·존슨, 노양진·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2009.

G·레이코프, M·존슨, 임지룡·윤희수·노양진·나익주, 『몸의 철학』, 박이정, 2011.

G·레이코프, M·터너, 이기우, 양병호 역, 『시와 인지』, 한국문화사, 1996.

질 들뢰즈, 이경신 역, 『니체와 철학』, 민음사, 2010.

피터 스톡웰, 이정화·서소아 역,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훗설, 이영호 역, 『현상학의 이념』, 세계사상전집, 38, 삼성출판사, 1978.

3. 논문

김정란, 「정현중, 꿈의 사제- 정현중의 상상적 체계, <사물의 꿈>을 중심으로」, 이광호 엮음, 『정현중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김주연, 「정현중의 진화론」, 이광호 엮음, 『정현중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김 현, 「정현중을 찾아서」, 이광호 엮음, 『정현중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남진우, 「정현중, 풀잎/보석의 상상 구조」, 이광호 엮음, 『정현중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9.

이경수, 「바람의 현상학」, 『작가세계』, 가을, 1990.

홍정선, 「시인의 탄성(歎聲)과 탄성(彈性)의 시」, 『문학과 사회』 21, 문학과지성사, 2008. 11.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정현중 「화음」에 대해 인지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시간 은유의 공간화 양상을 중심으로 텍스트의 의미구조와 상상력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의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음」의 언어적 인지기호는 상하의 공간으로 상승과 하강의 운동성을 보이며 수직과 수평의 공간을 형성하는 이원적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대립 구조는 ‘초월’과 ‘갈등’의 의미구조를 형성하며 역동적인 상상력의 폭을 넓혀주는 기능을 한다.

다음으로, 인지구조는 시간이 단면화되는 공간화 양상으로 나타난다. 시간을 공간화하는 예술인 무용은 시간은유를 공간화하는 양상에서 초월을 실현한다. 인지주체는 시간이 문득 곤두선 순간인 시간이 공간화된 지점에서 발레리나의 상승에 편승하고자 하는 꿈을 꾀다.

마지막으로, 이 시의 인지지향은 ‘시간’에 대한 은유가 공간화되는 초월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인지주체는 무용을 통해 상승하고자 하는 초월적 인지지향을 보인다. 이러한 인지지향은 이미지 도식으로 드러나며 시간이 공간화된 지점에서 의미가 활성화된다.

정현중의 「화음」은 형이상학의 철학적 화두인 ‘시간’에 대한 은유가 공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시에서 시인은 무용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꿈을 형상화한다. 이렇듯 시인은 시간이 공간화된 인지적 순간에 시간을 초월하고자 하는 내면의식을 발현한다.

주제어 : 정현중, 화음-발레리나에게, 인지시학, 시간, 은유, 공간

【Abstracts】

Cognitive Poetics Study on Jeong Hyun Jong's 'Harmony - To ballerina'

—In terms of Space Aspects of Time metaphor

So, Pil-Gyun

This article analyzes Jeong Hyun Jong's 'Harmony' in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poetics. Spatial aspects of time metaphor is the detailed analytic method. Textual meaning structure and imaginative structure is to figured out.

To begin with, poetic signs are dualistic in language. Cognitive signs are dynamic representing ascending and descending aspect to make space of horizontal and vertical. These contrasting structure formulates meaning structure of 'transcending' and 'contrast' and widens dynamic imaginations.

Next, time is transformed into space to make meaning structure. Dande, which transforms time into space, realizes transcendence during the transformations. The cognitive subject has a dream of going along with the ascending of ballerina at the moment when time is transformed into space.

Lastly, the cognitive aim of this poem has a transcending phase in which time metaphor is transformed into space. This cognitive aim is represented as image schema and has a meaning on the spot time is spatialized.

Jeong Hyun Jong's 'Harmony' has the transformation of time metaphor, philosophical theme, into space. In this poem, the poet embodies the dream

of overcoming of human shortage through dance. Thus, the poet represents the aspiration toward the transcendence of time into space.

Key words : eong Hyun Jong, Harmony - To ballerina, Cognitive Poetics, Time, metaphor, Space

이 논문은 2012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2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